

필름업계동향

수출지역 다변화 · 신규수요 창출등 대책 모색해야

OPP

1. 서론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온나 라를 뒤흔드는 가운데 전반적인 산업발전의 저 해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들은 경제위기 이전에 계획했던 증설이 나 투자에 대한 모든 계획을 무기한 연장하고 가지고 있는 설비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 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시아의 잇따른 경제위기 로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설상가상의 곤욕을 치루고 있다.

계속적으로 호황을 누리오던 OPP필름업계는 지난해 원료업체인 대림산업이 신규업체로 참여 함에 따라 업체마다 다소 물량이 감소하는 현상 을 보였지만 더욱 큰 문제는 올해부터로 짐작되 고 있으며 이미 올 상반기 물량이 20~30%감소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부도업체가 속속 나타나 필름을 공급하는 업체는 신규업체 출현과 내수시장 침체의 이중고를 감수해야 하 는 시련을 겪고 있다.

즉 식품업체와 같은 성장경향을 나타낼 수 밖 에 없는 필름업계는 제과 등 식품업체의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하므로 올해도 어렵게 전망되고 있다. 제과업계는 환율급등에 따른 원부자재 가 격상승 및 생산비용 증가, 원료수급 불균형, 대 형유통점 가격할인 요구, 수입상품과의 경쟁으 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제 품가 인상이 불가피하여 고급, 고가제품이 가속 될 예상으로 포장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2. 국내수요

97년 총 내수는 7만톤, 수출은 4만천톤정도로

(표) OPP 필름제조업체별 현황 (97년 기준)

(단위 : 톤/년)

업체	생산능력	실생산량	내수
대림산업	25,000	20,000	2
삼영화학	37,200 (콘텐츠용포함 : 41,400)	30,000	5 (2대 : 콘텐츠용, 3대 : 포장용)
서통	30,000	24,200	4
울촌화학	20,000	20,000	3
희승인더스트리	30,000	27,600	3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제위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어나 지난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올해부터 두드러지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지난 해 삼립식품 부도를 시작으로 내수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해 대형식품업체의 부도여파로 물량이 대폭 감소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환율인상으로 수출에 주력해 왔으나 곧 수출시장도 어려워짐에 따라 업체들은 지속적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 제조업체별 동향

3-1. 대림산업(주)

94년 설비인수와 함께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대림산업(주)은 연간 2만5천톤 캡파의 두라인을 확보하고 지난 해 2만톤을 생산, 내수로 1만2천8백톤, 수출로 7천2백톤을 판매해 내수와 수출이 4:6으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후발업체인 대림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그룹연구소와 연계한 품질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올해 연간 3만톤규모의 대단위 OPP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가졌던 대림은 불황으로 인해 계획을 연기해 놓은 상태다.

3-2. 삼영화학공업(주)

포장용 다섯라인과 콘덴서용 OPP 두라인을 보유하여 국내최대의 설비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삼영은 지난 해 포장용도로만 3만톤을 생산해 내수 1만3천톤, 수출 1만5천톤을 공급했다. 중

국 등 수출에 기반을 두고있는 삼영은 국내경기 침체로 올해도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3-3. (주)서통

현재 네대의 설비로 3만톤의 캡파를 보유하고 있는 (주)서통은 지난 해 내수 1만7천톤, 수출 7천2백톤을 기록했다.

서통은 내수 감소와 신규업체 참여로 예년에 비해 물량이 감소되었으나 올해는 내수시장의 부도업체 증가를 예상하고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3-4. (주)화승인더스트리

PET필름 사업시작과 함께 더욱 힘들었던 한해를 보낸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지난해 약 2만7천6백톤을 생산, 내수 1만4천4백톤, 수출 1만6천2백톤을 공급했다.

예년에 3:7로 내수가 월등히 앞섰던 현상을 뒤엎어 7:3으로 수출이 훨씬 증가된 현상을 보인 화승은 1, 2사분기까지 큰 물량에 변화가 없다가 하반기부터 내수물량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수출시장까지 안개가 끼어 올해 들어서 30% 가량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 울촌화학(주)

세라인을 보유하고 2천톤의 캡파를 가지고 있는 울촌화학(주)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식품사에 공급하는 물량으로 인해 지난해에도 큰 변화는 없이 내수 1만7천톤, 수출 3천톤을 생산 100% 가까운 가동률을 기록했으며 계속적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4. 98년 전망

IMF의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98년 OPP시장은 전반적으로 내수물량이 감소되는 반면 수출물량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들이 이미 수출로 상당부분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상태이며 신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업체의 증설계획도 꼬리를 감추고 당분간 증설을 자제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물량감소로 인한 업체의 가동률이 현격히 저하되는 현상도 수반될 것이다. 더욱이 동남아시아 위기는 이러한 국내현실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수출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업체들은 한정된 수출지역에서 탈피, 수출지역 다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CPP

1. 서론

OPP필름의 출현과 함께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CPP필름은 업체들의 새로운 용도개발, 품질향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민화학공업(주), 삼영화학공업(주), 유상공업(주), (주)성일화학, 삼진화학(주), (주)서통으로 유지되어 오던 시장에 지난 해는 기린화학(주)이 참여함으로써 색다른 양상이 예상됐던 한해였다.

기린화학(주)의 시장참여로 소폭 물량이 감소

하거나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해 생산보다 품질안정에 더욱 주력해 올해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기대된다.

또한 삼민화학이 지난해 한라인을 증설하여 캡파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수요는 감소되고 있어 경기가 어려운 올해 CPP필름 시장은 가장 어려운 한해를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제조업체별 동향

CJ JAPAN 1대, MISUIBISHI 1대를 보유해 왔던 삼민은 97년 바텐필드 1라인을 추가 증설함으로써 연간 1만톤(실생산 70%)의 생산캡파를 확보하게 됐다.

추가 증설된 라인의 대부분을 수출물량으로 충당하고 있는 삼민은 일반 증착용으로 동남아와 중국에 공급하고 있다.

부도위기를 맞고 법정관리체제 하에 있는 성일화학은 자가사용량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외부판매량이 줄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수출로 대응하는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Nihon Seiko 두대, Eagan 한대를 보유하고 연간 5천5백톤 정도의 캡파를 보유하고 있는 성일은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 수입되어 오던 이지필필름, 오렌지필필름을 개발하기도 했다.

96년 이탈리아 폴리타입사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고 사업을 개시한 기린화학은 올해 부도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2만4천톤 생산캡파 중 60%를 가동, 월 150톤을 생산하여 자체사용 40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메리야스 포장지, 빵포장지로 판매하고

[표] CPP 필름제조업체별 현황 (97년기준)

(단위 : 톤/년)

업체	실생산량(캡파)	설비규모(톤)
기린화학(주)	2,400(1,800)	폴리타입 1기
삼민화학공업(주)	10,000(7,000)	CJ Japan 1기 Misubish 2대 바텐필드 1대
삼영화학공업(주)	6,000(3,700)	Black Clawson 1기
(주)성일화학	6,000(5,000)	Nihon Seiko 2대
삼진화학(주)	1,200(900톤)	Eagan 1대 Nihon Seiko 1대
(주)서통	7,800(100%가동)	Mitsubishi 1기, Egan 1기
유상공업(주)	6,000(60~70%가동)	Mordern 2대, Mitsubishi 1기

있다.

국내 CPP 필름 생산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삼영화학은 년 6천톤 생산 가능한 Black Clawson설비 한대를 보유하고 지난해 3천7백톤을 생산했다.

수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삼영은 올해도 수출지향방향을 그대로 펼쳐 내수시장에 대비할 계획이다.

Misubishi 1기, Eagan 1기 한대를 보유하고 7800톤의 생산캡파를 보유하고 있는 서통은 지난해 타사와 달리 100% 가동률을 기록하고 내수 50%, 수출로 50%의 물량을 공급했다.

또한 적극적인 용도개발에 나서 팽이버섯, 야채용 방담필름을 개발, 적극 공급하고 있다.

Nihon Seiko 1기를 한대 보유하고 있는 삼진화학은 1천2백톤의 캡파 중 9백톤을 실생산하고 있으며 이 양의 대부분을 자가사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Mordern 두대, Mitsubishi 1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상공업은 생산캡파 6천톤 중 60~70%를 실생산하고 있다.

그간 노후설비를 교체한 유상은 대형화추세에 맞춰 설비증설 계획도 가지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3. 98년 전망

95년부터 성장에서 감소로 돌아선 CPP필름 수요가 97년까지 5~6%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오다 98년에는 30%이상 대폭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상반기부터 눈에 띄게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상태이며 업체들의 이에 대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수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가 밝지 않고 엔저현상도 한몫 거들어 수출시장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체들은 기능성을 가진 필름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높다.

PET

1. 서론

지난 해 국내 필름시장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었던 PET 필름시장은 신규업체의 본격적인 생산과 내수시장 혼란 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존업체인 (주)SKC, (주)새한, (주)코오롱, 서통이 시장을 형성해 오다 최근 (주)서통은 생산을 중단하고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을 개시한 고탕과, 효성생활산업, 화승인더스트리업체가 추가된 가운데 새롭게 시장이 형성됐다.

97년 기준으로 국내 PET 필름생산 능력이 96년대비 2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기준 생산업체인 SKC, 새한, 코오롱에 고탕을 비롯, 화승, 효성의 신규진입으로 연산 4만 8천톤이 증가돼 96년 23만 6천백톤에서 97년 28만 4천톤의 생산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신규업체들은 포장용이 자기용보다 특별한 기술적 노하우를 요하지 않고 향후 식품포장의 투명성 및 고급화 추세로 수요증가를 예상하고 시장가능성을 검토, 신규진출을 서둘렀으나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이 업체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증시키고 있다. 97년 기준 PET 필름 수요는 12만 5천톤으로 나타났는데 총 생산능력의 44%에 불과하다. 이에 포장용이 11%, 일반·산업용이 22%, 비디오, 오디오자기용 67%정도로 보여진다.

2. 제조업체 현황

SKC는 마그네틱 다섯대, 그래픽아트 두대, 전기·절연·전자 세대, 포장용 전용 한대를 비롯해

유동적인 포장용라인 두대를 포함 모두 13대라인을 보유하여 국내 최대의 캡파를 자랑하고 있다.

포장용으로는 1만8천톤의 설비캡파로 1만6천5백톤 생산하여 1만천3백톤을 내수로, 자가사용필름 2천톤, 내수 3천2백톤을 공급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에 필름공장 준공에 들어가 2천년대까지 10라인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SKC는 지난해 물량의 큰 변동은 없었으나 올 2월부터 포장업계 가동률이 60~70%선으로 되고 신규 제조업체 3사가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30%가량 물량이 줄 것으로 올해 시장을 내다보고 있다. 자기용 2대, 산업용 1대, 포장용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은 지난해 포장용으로만 연간 2만4천톤을 생산하여 내수 3천5백톤, 수출 만7천톤을 공급했다.

코오롱은 98년 2월까지의 판매량이 현상을 유지했으나 3월부터 30%가량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5천만달러를 투자해 현지법인으로 코오롱인나를 설립하고 연산 1만톤 규모의 폴리에스터 공장을 건설하여 동남아지역은 물론 구미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PET 필름사업을 개시한 화승은 시장이 크게 줄어 올해 증설계획을 포

(표 1) 제조업체별 PET 필름 생산(포장용)

(단위:톤/년)

기업	생산	내수	수출
(주)코오롱	24,000	7,000톤 (자가사용 3,500)	17,000
(주)SKC	16,500	5,200 (자가사용 2,000)	11,300
(주)화승인더스트리	7,200	2,400	4,800
(주)새한	24,000	2,500	18,500
(주)효성생활산업	4,500	1,350	3,150
(주)고합	7,400	3,700	3,700

단, 효성은 생산개시 후 지난 6개월간 수치임. 생산량에는 재고량이 포함된 수치임.

〔표 2〕 제조업체별 PET필름 생산(포장용)

(단위:MTA)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주)SKC	96,700(12)	105,700(13)	105,700(13)	105,700(13)	105,700(13)
(주)새한	71,400(6)	86,400(7)	86,400(8)	86,400(8)	86,400(8)
(주)코오롱	24,000(3)	44,000(5)	44,000(5)	44,000(5)	44,000(5)
(주)서통	6,000(1)	6,000(1)	가동중단		
(주)고합			24,000(2)	48,000(4)	48,000(4)
(주)화승인더스트리			12,000(1)	24,000(2)	24,000(2)
(주)효성생활산업			12,000(1)	12,000(1)	36,000(3)
계	198,100	236,100	284,100	320,100	344,100

※ ()안은 라인수

고합, 화승인더스트리, 효성의 98년 이후 증설계획은 불확실

기한 상태다. 신규업체인데다 내수시장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승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월 6백톤 생산하여 수출 4백톤, 내수 2백톤을 공급해 오고 있다. 대리점판매보다 직판으로 60~70%를 충당하고 있는 화승은 올해 후발주자로서 내수기반을 형성하고 수출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그룹내 구조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효성생활산업은 PET필름영업팀과 나일론 영업팀이 합쳐진 가공퍼포먼스 유니트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1만2천톤의 캡파를 보유하고 있는 효성은 지난해 6개월동안 4천5백톤을 생산 내수로 30%, 수출로 70%를 공급했다.

새한은 전체 8라인을 확보하고 8만6천4백톤의 캡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포장용으로 2만4천톤을 생산 2천5백톤을 내수로, 1만8천5백톤은 수출로 공급했다.

3. 98년 전망

PET필름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올해 최대의 불황을 겪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수요

30%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신규업체의 저가 판매로 인한 시장형성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해 업체는 초긴장상태다.

또한 전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과함께 일부 신규업체가 정리될 것도 예상되고 있는데 업체가 정리될 경우 시장에 또다른 변화가 예측된다. 이로인해 올해 증설을 계획하고 있던 업체들도 무기한 증설을 미루어 놓고 기존라인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예상된다.

오랜동안 PET필름은 제품의 장점 때문에 비교적 많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며 제살깎기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환율상승의 호기를 살려 수출을 높게 기대하고 있으나 수요시장의 수요감소세와 저가수출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존 수입선의 자급체제 수출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발동 등이 예상돼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듯 싶다.

업체들은 공급과잉상태인 내수시장에서 탈피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요창출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선하 기자